

시즌4

제3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이감**

[2021학년도 시준4 제3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19] 현대소설 : 윤홍길, 「완장」

* 수록 지문 평가

이 작품은 드러난 사건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당대 사회의 현실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우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를 통한 풍자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면서 읽자. 사투리의 관용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언어 사용의 해학성에도 주목하자.

* 수록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왼쪽 팔에 완장을 차고 저수지 감시원 노릇을 하던 종술은 어느 날 옛 친구 준환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몰래 낚시질을 하러는 현장을 덮친다.

#토막1 : 옛 친구를 몰인정하게 뒤통을 때리는 종술

“그러지 말고 내 말 조개[→ 조금, 잠깐의 사투리] 들어 보소. 넌들 좋아서 밤잠 안 자고 이런 일[→ 남의 저수지에서 몰래 고기를 잡아서 파는 일이다.]을 했잖는가. 꼭 그럴 만한 사정, 참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네.”

“설령 자네 선친 지사상[→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상]에 올릴라고 잡은 피기[→ 고기]라 허드래도 도적질은 엄연히 도적질이니께! [→ 어떤 핑계도 다 소용없다. 이 도둑놈아.]”

“날 욕하는 것이사 얼마든지 참어 줄 수 있다마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준환이는 다시 한번 힘으로 겨루어 보려는 자세를 취했다[→ 말싸움에 유리한 꼬투리를 잡아서 국면을 바꾸어 보려는 안간힘이다.].

“아무 상관도 없는 노인 낭반[→ 준환이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은 왜 들먹거리냐? 아직까장 시퍼렇게 살어 기시는 낭반을 누구 맘대로 고인(= 죽은 사람) 맨들고 야단이나?[→ 상대방의 무례한 말을 꼬투리로 잡아서 뒤집기 시도]”

“자식 된 도리로 부모 욕되는 것도 막심 불효 중에 하나니라.[→ 평소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아랑곳하지 않는 망나니 종술이 고풍스러운 말로 효도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종술이 말투를 바꾼 것에 **해학성**이 있다.]”

쿵방귀와 함께 종술은 여지없이 낮박살[→ ‘면박’의 사투리]을 주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 모양이었다. 번덕꾸러기 죽 꿍듯이 준환이는 금세 또 태도를 바꾸었다.[→ 뒤집기에 실패했다]

“비는 장수 목 치는 법 아니라네[→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의 사정을 봐 주는 것이 도리라는 뜻의 격언이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럼세. 종술이 자네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께 저놈 장래를 봐서라도 지발 요번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소.[→ 어린 아들을 방패로 내세우는 읍소 작전이었다.]”

준환이는 제 새끼를 끌어다가 종술의 발치에 주저앉았다.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어린것의 표정을 힐끗 살피고 나서 종술은 쓰디쓰게 입맛을 다셨다[→ 옛 친구의 아들에 대한 인정 때문에 약간 밀리는 듯한 반응이다.].

“고새 나 몰르게 피기를 몇 도라무[→ ‘드림통’이 변형된 말]나 잡아서 얼마나 수입 잡았는지 바른대로 고허거라[→ 일단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따지자는 의도이다. 주목할 것은 **완장과 말투의 관계**이다. 완장을 차고부터 말투가 고풍스러운 권력자의 그것으로 바뀌었다.]”

“믿어 주소. 머리털 나고 오늘 침 나온 게 요 꼴이라네.”

“안 되겠다. 지서[→ 경찰 지서]로 가서 따지자!”

“다섯 탕 넘게 뛰었다면 내가 참말로 성을 갈겠네[→ 종술의 엄포에 금세 말이 바뀌었다. 상황과 태도로 볼 때 이것도 진실은 아닌 듯하다.]! 어찌피 봐주기로 맘먹은 일, 기왕이면 아주 화끈하니 봐주소!”

“바른말만 나오면은 지서까장 안 갈 수도 있었다만, 암만허도 안 되겠다.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도 싸다, 싸!”

“적선(= 착한 일을 많이 함)이 따로 있단가, 종술이? 내 일신(= 한 몸) 호의호식허자고 이 난리 꾸뻐다면 내가 자네 배 속으로 빠져나온 놈 이겠네[→ 자기가 잘 먹고 잘살자고 도둑 낚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는 종술의 자식으로 취급받아도 달게 받겠다는 말이다.]. 내년에 저놈 중학교 보낼라고 현 짓이라네. 못난 조상 만난 죄로 지 애비나, 애비에 애비나, 애비에 애비에 애비맨치로 한뎡생 땅만 파먹고 살게코롬 맨들 수야 없잖았는가?[→ 준환이네는 대대손손 남의 소작일에 시달리면서 비참하게 살아온 집안이겠다.] 가난이 웬수고 그놈 그 지긋 지긋한 가난이 도적이지. 여보게 종술이, 지발덕덕[→ ‘제발’의 사투리] 좋은 일 조개 허소!”

(중략)

#토막2 :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종술

그는 눈물 바람으로 매달리며 끈끈한 소리로 용서를 빌던 김준환이 부자를 생각하고 씩쓰레하게 입맛을 다셨다. “애비에 애비에 애비맨치로……” 하고 울부짖던 준환이의 얼굴이, 그리고 그때 받았던 충격이 새삼스러운 가락으로 그의 머리를 때리는 것이었다[→ 준환이 저 말을 할 당시와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이 밀려온 것이겠다.]. 단순한 충격이라기보다 그것은 일종의 감동이였다.

어쩌면 애비라는 말을 끝없이 늘어 빼는 쪽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표현일지도 모른다. 대대로 땅만 파먹고 살아온 자기 조상을 녀석은 쉽게 말하느라고 그냥 삼대만 들먹이고 말았을 것이다. 그 땅이란 것도 실상은 자기 땅 아닌 남의 땅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이다.[→ 준환은 삼대까지만 들먹였지만, 실제로는 그 위로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도 남의 땅을 부쳐 먹는 가난뱅이 조상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자식 세대에겐 못난 조상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단데,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라도 큰자식을 가르쳐서 기필코 그 손에 붓대[→ 준환은 아들을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도둑질을 했다. 붓대는 그러한 교육의 끝에서 성취되는 지위일 것이다. 소설 안의 말로 하면 이것도 하나의 ‘완장’일 것이고 말이다.]를 쥐여 주고 싶었노라던 김준환의 그 울부짖음을 어금니 사이에 넣고 껌처럼 질경질경 씹다가 종술은 느닷없이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그 사품(= 어떤 동작이나 일이 진행되는 바람이나 겨를)에 땀목이 한바탕 심하게 요동을 쳤다. 그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잠시 물에 흠뻑 젖은 자신의 왼쪽 팔소매를 멍하니 돌아다보았다.

#토막3 : 보이는 완장에서 보이지 않는 완장으로의 인식의 확장

참으로 놀라운 이해의 순간이었다. 애비라는 말의 끝없는 되풀이가 그의 칠칠치 못한 두뇌로부터 갑작스레 어리석음을 몰아냄과 동시에 그만큼의 지혜를 심어 주었던 것이다.

“완장이구나, 완장!”

그렇다. 그것은 완장이였다. 준환이 놈은 그때 다름 아닌 그 완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 여기부터 쓰이는 ‘완장’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구분을 해야 한다. 하나는 저수지 관리인 완장 등 **㉠실제 권력의 표지인 완장**이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게 군림하는 모든 권력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의 ‘완장’**이다.

단혀만 있던 문이 열리면서 종술의 머리는 마침내 완장[→ ㉠+㉡]이란 물건의 정체에 대한 신통한 깨달음의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다. 팔에다 차는 것[→ ㉠]만이 완장의 전부[→ ㉠+㉡]는 아니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도둑질도 서슴지 않으면서까지 김준환이 필사적으로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것 또한 완장의 하나[→ ㉡]였던 것이다.

“권력 한 가지[→ ㉠]가 다는 아니며.”

이 세상에는 빛깔 다르고 소리와 냄새도 다른 수많은 완장들[→ ㉡]이 존재하고 있었다.

“땅도 완장[→ ㉡]이여.”

땅도 완장이었다. 없는 땅, 처자식 먹여 살리는 데 턱없이 부족한 땅 때문에 여태껏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려 왔던가.

“돈도 완장[→ ㉡]이고 지체나 명예도 말짱 다 완장[→ ㉡]이여.”

그런 것들도 틀림없는 완장[→ ㉠+㉡]의 한 종류였다.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것, 남들을 큰소리로 부리고 남들 앞에서 마냥 빼겨 댈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완장[→ ㉠+㉡]이었다.

⇒ 종술은 팔에 차는 완장만이 권력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힘들도 권력이라고 깨달았다. 그 권력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도 하고, 남들을 큰소리로 부리고 빼겨 댈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이 깨달음 때문에 종술은 완장의 권력에 더더욱 집착하게 된다. 소설 전체를 비평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 소설은 종술을 이런 깨달음과 집착에 몰아넣는 장면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 참고 자료

작품 전체 줄거리

졸부인 최 사장은 이곡리의 널금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들고 그 관리를 동네 건달 종술에게 맡긴다. 종술은 경비원 완장을 차게 해 준다는 말에 넘어가 관리인으로 취임한다. 그 하잘것없는 권력의 상징은 종술을 마냥 기고만장하게 만들어서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게 한다. 낚시질을 하는 도시의 남녀들에게 기합을 주기도 하고 고기를 잡던 초등학교 동창 부자를 폭행하기도 한다. 완장에 도취한 종술은 면소재지에 갈 때에도 완장을 차고 다니며 함부로 군다. 급기야 자신을 고용한 최 사장 일행에게까지 위세를 부리며 낚시질을 금지하여 결국 관리인 자리에서 쫓겨난다. 하지만 종술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완장에 집착하며 저수지를 독점하려고 든다. 마침 가뭄 해소책으로 저수지의 물을 빼려고 하는 수리조합 직원을 막아서다가 경찰과도 부딪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종술은 위기에 몰리게 되고, 평상시에 종술을 마음에 두고 있던 부월이가 나서서 종술에게 ‘완장의 허황됨’을 일깨워 준다. 종술은 완장을 저수지에 버리고 부월이와 함께 떠난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서양 철학 - 칸트의 숭고 미학
 칸트, 취미 판단, 미적 체험, 도덕적 체험, 숭고, 무관심성, 도덕 법칙, 공통감, 상상력, 지성
 예술 - 현대 예술 - 바넷 뉴먼, 숭고 미학
 수학적 숭고, 역학적 숭고, 이성, 바넷 뉴먼, 「인간, 영웅적이고 숭고한」

* 지문 분석

문단1 : 미적 체험과 도덕적 체험의 유사성

- 우리는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의 유사성을 떠올리기 힘들다. 예술이 주관적인 감성에 의거한 것인 반면 도덕 법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맞다. 상식적으로 어떤 조각상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상의 영역이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의무의 영역이다.
- 이와 관련하여 칸트는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행위인 취미 판단의 특징들에 대해 규명(=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하면서,
 ⇒ ‘칸트’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각상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역시 ‘취미 판단’에 해당할 게다. 어떤 대상이 ‘미적인 것’에 속하는지, ‘미적이지 않은 것’[→ 추한 것]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곧 취미 판단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만, 정확히 알아 두고 싶다면 다음 [참고]를 활용하자.
[참고] 예를 들어 ‘X는 아름답다.’는 X에 대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이때 술어의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은 X라는 대상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X가 아름답다는 것은 X를 마주하고 있는 ‘나’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에 해당할 뿐이다. 이렇듯 무언가가 아름답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다. 즉 X는 나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어 X의 자리에는 개별 대상만이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가능한 취미 판단이지만, ‘모든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장미를 마주하고 주관적으로 쾌감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미’는 도덕성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자율성을 지닌 것이지만
 ⇒ 여기까지는 1)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구분되는 것이 맞는데.....
- ‘미’와 도덕성 간에는 긴밀한 내면적 상관성이 있어서 미적 체험과 도덕적 체험은 유사한 면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에는 ‘내면적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체험에는 유사한 면들이 있다고 주장했단다. 이 건 새로운 내용인 만큼, 여기에 주목해야겠다.
[맥락 짚기] 따라서 앞으로는 칸트가 ‘취미 판단’을 어떻게 규명했는지 살펴 보면서 ‘미’와 도덕성 간의 ‘내면적 상관성’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 그에 따르면 어떤 예술 작품이 도덕적 내용[→ 도덕적인 것]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감상의 과정에서 쾌와 불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심미적인 감정인 「숭고」를 느낄 수 있는 경우에 우리는 도덕성의 고양을 체험할 수 있다.
 ⇒ 더 나아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숭고’를 체험한다면, 도덕성의 고양을 체험할 수 있단다. 주관적인 감성에 의거한 예술의 체험이 어떻게 보편적인 의무인 도덕성의 고양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아무래도 좀 더 읽어 봐야겠다.

문단2 : 무관심성

- 칸트에 따르면 취미 판단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무관심성이다. 무관심성이란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맥락 짚기] ‘취미 판단’의 첫 번째 특징인 ‘무관심성’에 대한 설명이다. ⇒ 예를 들어, 어떤 꽃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무관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관심’을 가져야 ‘무관심성’이라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일 텐데.....
- 이해타산적인 관심 없이
 ⇒ ‘저 아름다운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면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다!’와 같은 관심 따위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 건 취미 판단과 무관한 나쁜 관심이다.
-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 ‘저 아름다운 꽃을 짝사랑하는 그녀한테 보여 주면 나를 좀 더 좋게 생각해 주겠지?’와 같이 유용한 결과를 고려하는 것 역시 나쁜 관심이라는 게다.
-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저 꽃은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색을 갖게 되었을까?’와 같은 목적을 갖고 꽃에 관심을 갖는 것 역시 나쁜 관심이다.
-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음악을 듣거나, 유용성과 값어치를 따지면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다.
 ⇒ 2)~4)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겠다.
- 칸트는 관조적인 심리 상태인 무관심적 마음가짐으로 작품을 바라볼 때 온전한 취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관조적인 심리 상태’란 결국 이해타산적인 관심 없이,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아무 목적도 갖지 않는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취미 판단은 이루어질 수 없단다.
[참조] 쉽게 말해서 ‘무관심적 마음가짐’이란 어떤 작품을 바라볼 때 오롯이 그 작품의 형식적 측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칸트에 따르면 그 작품의 형식적 측면이 감상자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이 곧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온전한 도덕 판단을 위해서도 무관심적 태도가 필요하다.
[맥락 짚기] 문단1-4)에 제기되었던 ‘미’와 도덕성 간의 내면적 상관성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다. 미적 체험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체험에서도 무관심적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도덕 판단은 이해타산이나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선형적으로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도덕 법칙에 따라 선악을 판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취미 판단’이 ‘무관심성’에 의해 이해타산 따위로부터 벗어나야 하듯이 ‘도덕 판단’ 역시 ‘도덕 법칙’을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이해타산이나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단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 칸트에 따르면 도덕 판단은 우리를 실천적인 관심으로 이끄는데, 취미 판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야생의 희귀한 꽃에 대한 취미 판단은 그것이 멸종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실천적인 관심을 이끈다.
[맥락 짚기] 내면적 상관성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다. 도덕 판단과 마찬가지로 취미 판단 역시 ‘실천적인 관심’을 이끌어 낸단다.
[주목] 이때 ‘실천적인 관심’은 무관심적 마음가짐을 전제로 하는 ‘취미 판단’과 완전히 구분된다. 한마디로 취미 판단에 의해 실천적인 관심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천적인 관심이 곧 취미 판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야생의 희귀한 꽃’을 마주했을 때 ‘저 희귀한 꽃을 학계에 보고하면 난 유명해질 수 있을 거야.’와 같은 이해타산적 관심을 보이는 것 역시 무관심성에 어긋나지만, ‘저렇게 희귀한 꽃이 멸종된다면 어떡할까. 너무 안타깝다.’와 같은 관심을 보이는 것 역시 무관심성에 어긋날 게다. 지

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미와 도덕성 간의 내면적 상관성>

① 취미 판단과 도덕 판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관심적 태도**가 필요하다.

② 취미 판단과 도덕 판단 모두 **실천적인 관심**을 이끈다.

문단3 : 공통감

- 1) 취미 판단의 또 다른 특징으로 **공통감**이 있다. 공통감은 지식에 기초한 **상식**이나 지극히 주관적인 **감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감정**이나 **느낌**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다. 아무래도 좀 더 읽어 봐야겠다. ‘공통감’이라는 것이 ‘상식’이나 ‘감각’과는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만 확실히 파악하고 넘어가자.
- 2) 사람들은 공통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적 대상에서 유사한 **쾌**의 감정이나 만족감을 전해 받을 수 있어서[→ 유사한 취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 취미 판단은 개인적인 취향에 머물지 않고 보편성을 띠게 된다.
 - ⇒ 취미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즉 어떤 장미가 아름답다면, 이는 그 장미가 **나**에게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대상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미적 쾌감을 체험하게 된다. 나에게 아름다운 장미는 철수에게도, 영희에게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겠냐는 게다.
 - ⇒ 이제 좀 알겠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취미 판단이 이렇게 보편성을 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통감’ 때문이란단다. 즉 사람들은 감정이나 느낌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한 취미 판단을 내리게 된단다.
- 3) 공통감은 책순 폴록의 작품처럼 물감이 이리저리 흩뿌려져 있어서 형태조차 알 수 없는 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무엇을 그린 것인지 확인하기 힘든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떠올려 형태를 재현하는 기능인 상상력**이 발휘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지성**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공통감의 작용이 나타나서 **상호 공감에 이르는 것**[→ 취미 판단이 보편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 ⇒ 그렇단다. 이렇게 취미 판단은 ‘상상력’과 ‘지성’이 결합하는 ‘공통감’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성을 띠 수 있다.

[주목] 이러한 공통감의 작용이 ‘형태조차 알 수 없는 작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자. 취미 판단의 보편성이 공통감 때문인 만큼, 취미 판단은 결국 공통감을 전제로 한다.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이든 그렇지 않은 작품이든 결국 취미 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공통감이 작용한다는 뜻이다.
- 4) 그런데 공통감은 도덕 판단이 보편적인 것임을 확인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공통감을 통해 자신의 입장에 머물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타인의 입장을 떠올릴 수 있고** 결국 보편적인 입장에 서서 반성할 수 있는 것이다.
 - [백락 짚기]** 내면적 상관성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이다.
 - ⇒ ‘취미 판단’에서 공통감이 작용하듯이, ‘도덕 판단’에도 공통감이 작용한다. 인간은 공통감 덕분에 ‘나와 감정이나 느낌의 구조가 동일한 철수나 영희 입장에서도 이 행위가 선할까?’를 넘어서 ‘모두의 입장에서도 이 행위가 선할까?’와 같은 보편적인 입장에서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문단2-9)까지의 정리를 보완하자면 다음과 같겠다.

<미와 도덕성 간의 내면적 상관성>

① 취미 판단과 도덕 판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관심적 태도**가 필요하다.

② 취미 판단과 도덕 판단 모두 **실천적인 관심**을 이끈다.

③ 취미 판단과 도덕 판단 모두 **공통감**의 영향을 받는다.

문단4 : 숭고의 체험

- 1) 칸트는 예술 작품에서 **숭고**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예술과 도덕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 [백락 짚기]** 문단3까지는 취미 판단의 특징을 규명하면서 ‘미’와 도덕성 간의 긴밀한 **내면적 상관성**을 설명했다면, 문단4부터는 예술 작품으로부터 ‘숭고’를 체험함으로써 어떻게 **도덕성의 고양**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게다.
 - 2) 그에 따르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뿐 아니라 **숭고한 것**에서도 만족감을 얻는다. 다만 ‘미의 쾌’와 숭고를 통한 만족은 구분된다.
 - ⇒ ‘아름다운 것’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숭고한 것’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다르단다. 당연히 다르니까 구분하는 것일 텐데…… 일단 좀 더 읽어 보자.
 - 3) ‘미의 쾌’가 직접적으로 **생명을 촉진하는 느낌을 수반하는 데** 반해, 숭고는 **쾌와 불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엄숙이나 경외의 느낌**을 불러온다.
 - ⇒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쾌는 ‘생명을 촉진하는 느낌’이란단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아무리 힘들어도 귀여운 동물 사진을 바라보면 ‘아, 내가 이거 보는 맛에 그래도 오늘 하루도 버틴다.’ 하는 만족감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생명을 촉진하는 느낌’인 게다.
 - ⇒ 이와 달리 ‘숭고한 것’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쾌로 설명할 수 없는, 엄숙이나 경외의 느낌이란단다. 두려우면서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일 게다. 개인적으로는 지도 교수님을 마주하면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 귀여운 동물 사진을 바라볼 때와는 확실히 결이 다른 만족감일 게다.
- [참조]** ‘미의 쾌’가 생명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느낌이라면 ‘숭고’는 생명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느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 4)의 내용을 조금만 미리 끌어오자면 수학적 숭고이든, 역학적 숭고이든, 숭고는 결국 인식을 넘어설 정도로 거대하거나 위력적인 대상 앞에서 받는 **생명을 압도당하는 느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대상이 생명을 완전히 압도하여, 무너트릴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게 아니라면, 그 느낌은 **간접적으로** 생명을 촉진시킬 수 있다.
 - 4) 칸트는 숭고를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로 구분하였다. **수학적 숭고**는 크기에 대한 **심미적인 경험을 할 때 느끼는 것으로**, 일상적인 상상력을 넘어선 커다란 광경이 펼쳐졌을 때 느낄 수 있다.
 - ⇒ 일상적인 상상력을 넘어선 커다란 광경을 마주함으로써 엄숙이나 경외의 느낌을 떠올리는 것이 곧 ‘수학적 숭고’의 체험일 게다.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한눈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바다 등이 적절한 예시겠다.
 - 5) **역학적 숭고**는 광대한 자연의 힘 등에 대한 심미적인 경험을 할 때 느끼는 것으로, 위력적인 대상 앞에 지극히 미미한 존재로 여겨질 때에 느낄 수 있다. 크기가 인식의 수준을 넘어선 것과 관련된 것은 수학적 숭고의 체험인 반면, 대상이 어느 정도로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 낼 것인가와 관련된 것은 **역학적 숭고의 체험**에 해당한다.
 - [주목]** ‘역학적 숭고’를 4)의 ‘수학적 숭고’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 ⇒ 4)의 ‘수학적 숭고’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에서 비롯된다면, ‘역학적 숭고’는 그 대상이 지닌 거대한 힘으로부터 비롯된다. 깎아 내릴 듯이 높은 곳으로부터 위협적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것만 같은 위력의 화산 폭발 따위가 적절한 예시겠다.



⇒ 이렇게 거대한 힘을 가진 대상으로부터 단순히 두려움만을 느낀다면 엄숙이나 경외의 느낌을 불러오는 숭고의 체험이라고 볼 수 없을 게다. 따라서 '역학적 숭고의 체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 낼 수 있는지를 포함한다.

문단5 : 숭고를 통한 도덕성의 고양

1) 칸트에 따르면 인식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크기가 큰 것에 마주하여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 수학적 숭고의 체험]이나 위력적인 대상 앞에서 위축감을 느끼는 상황[→ 역학적 숭고의 체험]에서, 공포를 이겨 내는 자신을 보고 정신적 고양에 이르는 것까지가 숭고의 체험에 해당한다.

⇒ 오히려, 보아하니 문단4-5)의 '역학적 숭고'는 물론이고 '수학적 숭고' 역시 그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포를 이겨 내는 것을 포함하나 보자. 한마디로 '숭고의 체험'은 결국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을 마주하고, 그 공포를 이겨 내는 과정을 통해 '정신적 고양'에 도달하는 체험인 게다.

2) 이성적 존재로서 이러한 상황[→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을 마주하는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을 볼 때 정신적 고양을 체험하는 것이다.

⇒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포를 받아들이고, 이겨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참조] 칸트가 말하는 '공포를 이겨 넘으로써 정신적 고양을 체험한다는' 설명은 우리가 그 어떤 공포를 마주하더라도 이를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도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이 눈앞에 실재하여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면, 그 공포를 이겨 낼 수 없을 게다. 칸트에 따르면 숭고의 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공포로부터 실제로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3) 칸트는 인간이 공포를 느끼면서도 이를 담대하게 수용하고 경외감을 갖는 모습[→ 숭고의 체험]이 도덕 법칙을 대할 때의 모습과 같다고 보고, 숭고의 체험은 우리의 상상력이 이성에 의해 훈련되어 도덕적 이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Rew] 오해하지 말자. 문단3-3)의 '미적 체험'에서는 공통감의 작용과 관련하여 상상력과 지성이 결합했다면, '숭고의 체험'에서는 상상력과 이성이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숭고의 체험'은 '취미 판단'과도 구분되어야 옳다.

⇒ 이러한 '숭고의 체험'은 '도덕 법칙'을 마주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숭고의 체험은 결과적으로 도덕적 이념에 도달하는 데에 기여한다.

4) 이에 따르면 우리는 숭고를 전하는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도덕성의 고양을 체험할 수 있다.

[Rew] 이런 이유로 우리는, 문단1-5)의 설명대로, 설령 예술 작품이 도덕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감상 과정에서 도덕성의 고양을 체험할 수 있는 게다.

문단6 : 바넷 뉴먼

1) 실제 바넷 뉴먼의 「인간, 영웅적이고 숭고한」은 숭고 그 자체를 표방한 것으로, 도덕과 연결되는 숭고를 유발하는 작품으로 거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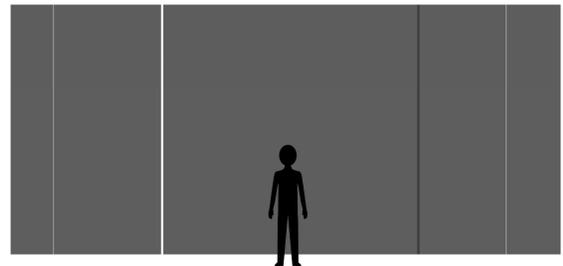
[백락 짚기] 숭고를 전하는 예술 작품의 예시다.

2) 이는 폭이 5m가 넘는 캔버스 전면에 걸쳐 붉은 원색만이 칠해져 있고 양쪽에 수직 띠가 위아래로 가로지르는 것이 전부이다.

⇒ 전통적인 의미에서 무언가를 재현하고 있지는 않은 게다.

3) 뉴먼은 이 작품을 바로 앞에서 마주하도록 요구했는데, 캔버스의 외곽 틀이 없어 사방으로 확장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거대한 붉은 색면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감상하면 종교적 체험과 같은 엄숙한 감정을 갖게 된다.

⇒ 5m가 넘는 크기를 보여 줄 수 없어서 유감이다. 자유로운 감상을 허용하는 대신 바로 앞에서 감상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럼으로써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숭고의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게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신적 고양'에까지 이를 수 있단다.



바넷 뉴먼, 「인간, 영웅적이고 숭고한」

4) 뉴먼의 새로운 모색처럼 현대 예술계에서는 칸트의 통찰을 수용하여 숭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 뭐 그렇단다. 좋은 얘기다.

이감

[26~29] 과학 : 상대론적 역학과 질량의 증가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역학 - 질량

뉴턴 역학, 상대론적 역학, 질량, 가속도, 속도, 힘, 운동량, 운동량 보존 법칙, 완전 비탄성 충돌, 빛의 속도, 거리, 시간, 운동 질량, 정지 질량

* 지문 분석

문단1 : 뉴턴 역학의 질량과 상대론적 역학의 질량

1) 뉴턴 역학에 따르면 물체에 가한 힘은 물체의 질량에 속도의 변화량인 가속도를 곱한 값과 같다.

⇒ 수식으로 정리하자.

$$\text{물체에 가한 힘} = \text{물체의 질량} \times \text{가속도}$$

2) 즉 물체에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화하며, 질량이 클수록 속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더 많은 힘이 소요된다.

⇒ 1)의 수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물체에 가한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
 - 물체에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화하며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속도는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다. 즉 등속도 운동을 한다.
 -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크면 클수록 속도의 변화량인 가속도는 크다.
- ② 질량과 물체에 가한 힘은 비례한다.
 -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는 크다.

3) 뉴턴 역학은 질량이란 변하지 않는 실질적인 양이라고 여겨, 물체의 속도가 변화해도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 뉴턴 역학에 따르면 질량이란 물체의 실질적인 양으로서 물체에 힘을 가해 물체의 속도가 변화하더라도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가 더 빨리 뛰려고 해서 우리 몸의 질량이 바뀌지는 않을 테니 직관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 같은데.....

4) 그런데 입자를 가속시키는 실험 결과, 입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가속에 점점 더 막대한 힘이 소요된다.

⇒ 실제로 실험을 해 보니 입자의 경우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변화시키는 데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했다는 거다.

[Rew] 2)에서 '질량이 클수록 속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더 많은 힘이 소요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질량이 아주 작은 입자는 매우 작은 힘으로도 가속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험 결과는 이와 달랐다는 거다. 이것은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다는 조건의 영향일 게다.

5) 이를 설명하는 상대론적 역학에 따르면 질량 역시 물체의 운동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물리량이다.

[Rew] 3)에서와 같이 뉴턴 역학에서는 질량을 변화하지 않는 양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상대론적 역학에서는 질량을 변화하는 물리량으로 본 거다. 이는 입자를 가속시키는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듯 질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되겠다.

문단2 : 뉴턴 역학과 운동량 보존 법칙

1) 질량이 큰 물체와 작은 물체가 같은 속도로 운동할 때 질량이 큰 물체를 멈추기가 더 힘들며, 이때 질량이 큰 물체의 운동량이 더 크다고 말한다.

⇒ 정리하자.

$$\text{질량} \uparrow = \text{멈추기 힘든 정도} \uparrow = \text{운동량} \uparrow$$

2) 운동량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 관성과 관련이 있으며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크기 때문에 멈추기도 힘들다는 거다. 운동량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ext{운동량} = \text{질량} \times \text{속도}$$

⇒ 이 수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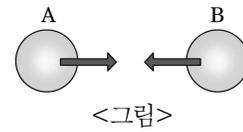
- ① 운동량과 질량은 비례한다.
- ② 운동량과 속도는 비례한다. 물체의 운동 속력이 빠를수록 멈추기가 더 힘들다.
- ③ 질량과 속도는 반비례한다.

3) 뉴턴 역학에 따르면 일정 대상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따른다.

⇒ 여러 대상들의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은 '뉴턴 역학'의 관점이다. 그렇다면 질량을 '뉴턴 역학'과 다르게 정의하는 '상대론적 역학'의 입장은 뭘까?

문단3 : 관찰자가 정지한 상태에서의 충돌 전후의 운동량

1) 관찰자가 정지해 있는 상태인 S0에서 <그림>과 같은 상황을 관찰한다고 하자.



⇒ 관찰자가 정지한 상태에서 관찰한다는 조건에 주목하자.

2) 질량이 m으로 같은 A와 B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여 멈추는 상황이다.

⇒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서로를 향해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 후 정지하였다. 이때 '완전 비탄성 충돌'이란?

3) A의 속도는 u이고 B의 속도는 크기가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u이다. ⇒ 두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이니 속도를 각각 u과 -u로 표현할 수 있다.

4) 완전 비탄성 충돌이란 충돌 후 튕겨 나가지 않고 하나로 합체되어 움직이는 경우를 말한다.

⇒ 두 물체가 충돌한 후 하나로 합쳐져 움직이는 것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 한다.

[참고]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 후 두 물체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충돌로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제일 큰 충돌이다. 벽에 진흙을 던졌을 때, 진흙이 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완전 탄성 충돌'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는 충돌이다. 이는 운동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지 않을 때만 일어나는 충돌로,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한 충돌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충돌에는 완전 비탄성 충돌과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닌 중간 성격의 비탄성 충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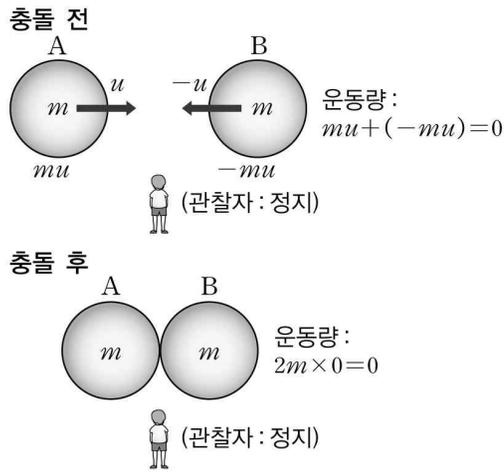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운동량	보존	보존	보존
운동 에너지	보존	손실	손실
사례	입자 충돌 이상 기체	대부분의 충돌	진흙과 벽

5) 이 상황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은 A에서 mu이고 B에서 -mu이므로 그 합이 0이다.

[Rew] 문단2-2)에서 봤듯이 '운동량 = 질량 × 속도'이므로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mu, B의 운동량은 -mu가 되고 이들 운동량의 합은 0이 된다.

6) [완전 비탄성] 충돌 후에는 질량이 2m이고 속도가 0이 되어 운동량이 0이다. 즉 운동량이 보존된다.

⇒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 후에는 두 물체는 하나로 합체되어 질량은 $2m$ 이고 속도는 0인, 즉 정지한 상태가 된다.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동일하므로 '운동량 보존 법칙'과 부합한다.



<관찰자가 정지한 상태에서의 충돌 전후의 운동량>

문단4 : 관찰자가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충돌 전후의 운동량

1) 이번에는 관찰자가 왼쪽으로 u 의 크기만큼, 즉 $-u$ 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S1에서 <그림>과 같은 상황을 관찰한다고 하자.

[맥락 짚기] 문단3-1)과 달리 이번에는 관찰자가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관찰한다는 조건임에 주목하자.

2) S1에서 B는 관찰자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뉴턴 역학에서든 상대론적 역학에서든 관찰자에게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관찰자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관찰자에게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뉴턴 역학'과 '상대론적 역학' 모두에서 같다. 다른 점은 뭘까?

3) 그리고 뉴턴 역학에 따르면 S1에서 A는 관찰자와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므로 오른쪽으로 $2u$ 만큼, 즉 $2u$ 의 속도로 관찰된다.

⇒ $-u$ 의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u 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2u$ 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내 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내가 그쪽으로 움직이면서 볼 때 물체가 더 빠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도 부합하는 얘기다.

4) 그런데 이 경우 상대론적 역학에서의 속도 합성 공식은 다르다. 상대론적 역학에 따르면 빛의 속도 c 는 관찰자의 속도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고 그 무엇보다 빨리 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상대론적 역학에서는 $-u$ 의 속도로 운동하는 관찰자에게 u 의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 A의 속도가 $2u$ 의 속도로 관찰되지 않는다. 빛의 속도가 관찰자의 속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고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달리는 기차 안에서 빛을 앞으로 쏘았을 때 기차 밖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게도 빛의 속도는 c 이지, c 에 기차의 속도를 더한 값이 아닌 것이다.

⇒ 달리는 기차 안에서 빛을 앞으로 쏘았을 때, 기차 밖의 관찰자가 정지해 있던 기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관계없이 관측되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6) 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를 감안하여 상대론적 역학에서 산출한 합성 공식에 따라 S1에서 관찰자에게 관측되는 A의 속도 v 를 구한 식은 다음과 같다.

$$v = \frac{2u}{1 + (u^2/c^2)}$$

⇒ 만약 물체 A의 속도 u 가 매우 작다면 분모인 ' $1 + (u^2/c^2)$ '의 값이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관찰자에게 관측되는 A의 속도인 v 는 $2u$ 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는 3)에서 확인한 것처럼, 뉴턴 역학의 입장에서 파악한 A의 관측 속도인 $2u$ 와 같다. 반면 물체 A의 속도

$$u \text{가 매우 커서 빛의 속도인 } c \text{에 가까워진다면 } v = \frac{2c}{1 + (c^2/c^2)} \text{ 이}$$

되기 때문에 관찰자에게 A는 c , 즉 빛의 속도로 관측될 것이다. 이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관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S1에서 A와 B가 충돌하기 전에는 A의 속도가 v 이고 B는 정지 [→ $v=0$]해 있으므로 운동량의 합은 mv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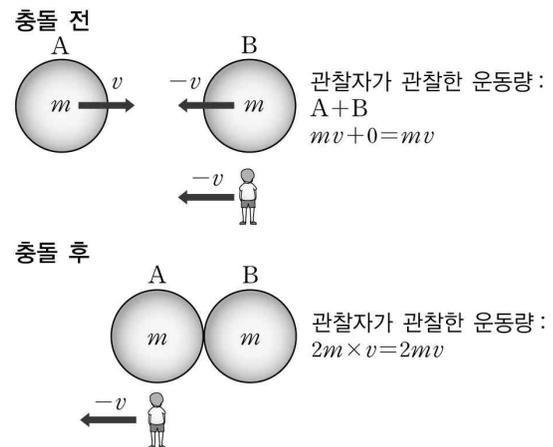
⇒ 충돌하기 전 A의 운동량은 mv ,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관찰자가 보기에 정지한 것으로 관측되는 물체 B의 운동량은 0이다. 따라서 두 운동량의 합은 mv 가 되겠다.

8) 그런데 [완전 비탄성] 충돌 후에는 질량이 $2m$ 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u 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되므로 운동량이 $2mu$ 이다.

[Rew] 문단3-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질량이 m 으로 같고 각각 u 와 $-u$ 의 속도로 마주 보며 운동하던 물체 A와 B는 완전 비탄성 충돌 후 질량은 $2m$, 속도는 0이 될 것이다. 다만 S1의 상황에서 왼쪽으로 $-u$ 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에게는 합체된 $2m$ 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u 의 속도로 운동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충돌 후의 운동량은 $2mu$ 이다.

9)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mv 와 $2mu$ 가 같은 값이어야 하는데, v 의 식을 보면 u 가 0이 아닌 한 두 운동량이 같은 값일 수는 없다.

⇒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두 물체의 충돌 전 운동량인 mv 와 충돌 후의 운동량인 $2mu$ 가 같아야 한다. 그런데 u 가 0일 때 mv 와 $2mu$ 가 모두 0으로 같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운동량의 값이 같을 수가 없다. '상대론적 역학'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상대론적 역학의 입장: 관찰자가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충돌 전후의 운동량>

문단5 : 속도의 증가에 따른 운동 질량의 증가량

1) 거리와 시간으로 구하는 값인 속도는 다시 정의할 수 없는 양이므로,

⇒ 속도는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이므로, 속도 v 는 d/t , 즉 이동 시간분의 거리로 표현될 뿐 다른 방식으로 속도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거다.

2) 상대론적 역학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인정하려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Rew] 문단1-5)에서는 실험을 통해 질량이 변화하는 물리량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준다. 뉴턴 역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부정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상대론적 역학에 와서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상대론적 역학에 와서 '운동량 보존 법칙'과 '질량을 변하지 않는 물리량으로 정의하는 것'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모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상대론적 역학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인정하기 위해 질량을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거다.

⇒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인데, 속도는 다르게 정의할 수 없으므로 질량을 다르게 정의하기로 한 것이다.

3) 상대론적 역학에서는 정지해 있을 때의 질량을 **정지 질량**, 운동하고 있을 때의 질량을 **운동 질량**이라 하는데, 물체의 운동 질량은 정지 질량보다 항상 크다.

⇒ 운동 질량이 항상 정지 질량보다 크다고 하니, 정지해 있던 물체가 운동하면 질량이 더욱 커지겠다.

4) 다만 상대론적 역학에서 구한 v 의 식에서 u 가 일상에서처럼 c [→ 빛의 속도]에 비해 극히 미미한 값인 상황에서는, 근사적으로 분모를 1로 보아 뉴턴 역학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Rew] 문단4-6)처럼 상대론적 역학에서 충돌하기 전의 A의 속도는

$$\frac{2u}{1+(u^2/c^2)}$$

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운동 속도는 빛의 속도에 비하면 매우 작은 값이므로 분모 '1 + (u²/c²)'의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져 v 의 값은 $2u$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문단4-3)에서 뉴턴 역학의 입장에서 파악한 A의 속도와 같은 것이다.

5) 즉 속도의 증가에 따른 질량의 증가량은 미미하다가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급격히 커진다.

⇒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속도가 증가해도 빛의 속도에 비해 여전히 작을 때에는 질량의 증가도 미미할 뿐이다. 다만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에는 질량의 증가량도 급격히 커진다.



[37~41] 사회 : 외환 스와프와 통화 스와프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경제학 - 거시 경제 - 환율, 스와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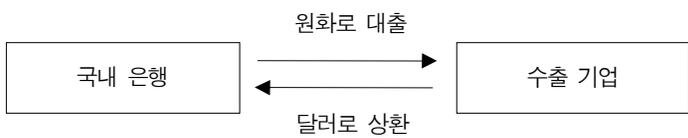
환율, 외환 스와프, 선물 거래, 만기,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선물 시장, 선물, 통화 스와프, 이자율, 중앙은행,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협정, 외환 보유고, 기축 통화

* 지문 분석

문단1 :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는 방법

1) 국내 은행 A가 수출 기업 B에 12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 주면서 3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달러로 상환받기로 [→ 되돌려 받기로] 하겠다고 하자.

⇒ 그렇다고 가정하자. 우리나라 돈인 원화로 대출을 해 주고, 외환인 달러로 되돌려 받는단다. 3개월 뒤라면 달러에 대한 환율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2)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일 때의 대출이면 상환받을 원금만 1,000만 달러에 해당한다.

⇒ 국내 은행 A가 대출 당시의 환율로 대출해 준 금액을 계산하면 [→ 120억 원 ÷ 1,200원] 1,000만 달러가 된단다. 거래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그렇다는 건, 환율에 약간의 변동이 생겨도 상환받을 원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가.

⇒ 상식적인 내용이니 환율의 개념은 좀 짚어 두자. 지금은 자신과 별 상관없는 얘기 같겠지만,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저절로 민감해진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출국 직전 환전하는데 1달러당 1,200원이 되면 여행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참고]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외화와 교환되는 비율로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화의 상대적 가치를 말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자국 화폐의 가치가 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렇게 결정된 환율을 '균형 환율'이라 한다.

3) 그런데 3개월 동안 원화에 대한 달러 가치가 평가 절하(切下) [→ 화폐의 가치가 내려감]하여 환율이 1달러당 1,100원까지 내리면 A는 상환받을 달러를 원화로 교환했을 때 원금에서만 10억 원의 손해를 본다.

⇒ 걱정하던 일이 생겼다.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한 시기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다. 3개월 뒤 국내 은행 A가 원금 1,000만 달러를 상환받아 이를 원화로 교환하면 [→ 1,000만 달러 × 1,100원] 110억이 된다. 은행은 대출로 이익은커녕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어쩐다?

4) 이와 같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A는 외환 스와프나 통화 스와프를 활용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환율은 늘 변동하므로 환율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다행히 A는 외환 스와프나 통화 스와프를 활용하면 환율 변동의 위험을 없앨 수 있다. 마법과 같은 외환 스와프는 뭐고, 통화 스와프는 뭘까?

[맥락 짚기] 앞으로 외환 스와프와 통화 스와프가 뭘지 제시되겠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살피면서 각각의 공통점이나 차이점도 잘 구분해서 읽어야겠다.

문단2 : 외환 스와프

1) 외환 스와프는 A가 그 대출과는 별도로 달러에 대해 선물(先物) 거래를 해 두는 방법이다.

⇒ 외환 스와프에 대한 설명이다. 국내 은행 A가 수출 기업 B에 해 준 대출과는 상관없이 활용하는 방법인가 보다. '달러에 대한 선물 거래'를 하면 된다는데, 그렇다면 선물 거래가 뭘지 알아봐야겠다.

[참조] '스와프'는 두 당사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서로 맞바꾸기(swap)로 합의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다. 선물을 한자로 쓰면 '先物', 영어로는 'futures'다. 거래의 방법에 맞게 '미리' 또는 '미래'의 뜻이 담겨 있다.

2) 선물 거래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만기에 현물을 거래한다는 선물 계약을 맺고, 만기에 해당 거래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좀 어렵다. 하나씩 살펴보자. '미리 정한 가격'이라는 것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매매할 가격을, 현재 시점에 정한다는 거다. 만기에 거래한다는 '현물'은 문단1의 사례에서는 '달러'가 되겠다. 가령 국내 은행 A는 수출 기업 B에게 대출해 준 후, 1달러당 1,200원으로 미리 가격을 정해 놓는 선물 거래를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거다.

⇒ 선물 계약은 계약을 하는 시점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르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만기'가 된다. 가령 3개월 뒤에 거래되는 선물 계약을 체결하면, 만기가 되는 3개월 뒤에 1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 되든 1,500원이 되든 무조건 1,200원으로 해당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란 미래 시점에 거래할 물건에 대한 가격 [→ 1달러당 1,200원]을 현재 시점에 미리 정해 둔다는 거다.

3) [선물] 계약 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 만기에 그 가격 [→ 선물 계약 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실제 달러를 사들여야 하고,

[주목] '매수 포지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겠다. ⇒ 일반적으로 물건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듯이 선물 거래 역시 그렇다. '매수'는 물건을 산다는 뜻이니까 '매수 포지션'은 물건을 사는 입장이라는 거다. 선물 거래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렇게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 중 한 가지 상태에 있게 된다. '매수 포지션'을 취한 사람은 계약이 이행되는 미래의 '만기' 시점에 미리 정해 둔 가격으로 달러를 사야 한다.

⇒ 매수 포지션을 취한 자는 만기 시점에 계약 당시보다 달러 가치가 평가 절상되면 이익을 얻고, 평가 절하되면 손해를 본다.

4)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만기에 실제 달러를 팔아야 한다.

⇒ '매도'는 물건을 판다는 뜻이므로 '매도 포지션'은 물건을 파는 입장이라는 거다. 이제는 이해가 됐겠지만, 일반적인 물건 거래와 다르게 '포지션'은 미래에 물건을 사거나 파는 입장을 가리킨다. 만기에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 되든 1,500원이 되든 미리 정한 가격이 1달러당 1,200원이라면 무조건 이 가격으로 달러를 팔아야 한다.

⇒ 매도 포지션을 취한 자는 만기 시점에 계약 당시보다 달러 가치가 평가 절하되면 이익을 얻고, 평가 절상되면 손해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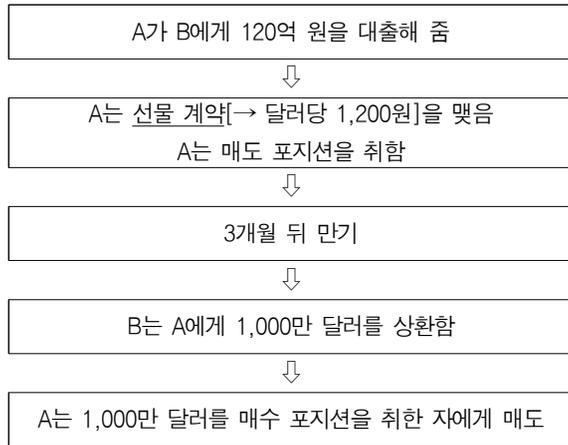
5) [국내 은행] A는 선물 시장에서 3개월 만기의 달러 선물에 대해 달러당 1,200원의 가격으로 B에 대출한 금액만큼의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A는 B로부터 달러를 상환받은 후 선물의 만기에 계약 당시 매수 포지션을 취한 자에게 이를 1달러당 1,200원에 매도해야 한다.

⇒ 문단1 사례의 적용이다. A는 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걸까? B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달러로 상환받기 때문이다. 대출 원금만 고려해 보면 A는 B로부터 1,000만 달러를 상환받아 매수 포지션을 취한 자에게 대출 당시의 환율인 1달러당 1,200원으로 실제 달러를 팔아야 한다.

6) 그 시점의 환율이 1,100원이더라도 정해진 가격에 매도할 수 있으므로 환율 변동의 위험이 제거된 것이다. 물론 이는 달러가 평가절상[→ 화폐의 가치가 올라감]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마저 제거되는 방법이다.

[Rew] 선물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문단1-3)에서 설명했듯이 환율이 1,100원일 때 A는 원금에서만 10억 원의 손해를 본다.

⇒ 아, 그렇겠다. 만약 만기 시점의 환율이 1,100원이라면 선물 계약으로 10억 원의 손해는 제거됐지만 반대로 1달러당 1,300원이 되었을 때 얻을 이익마저 제거됐겠다. 나라면 위험이 제거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혹시 모를 이익은 포기하겠는데, A도 같은 생각일지 궁금하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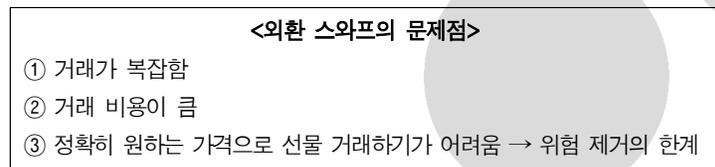
문단3 : 외환 스왑의 문제점과 통화 스왑

1) 그런데 외환 스왑은 복잡하고 수수료 등 거래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 내 통장에 넣어 둔 돈을 ATM기에서 찾을 때 몇백 원의 수수료가 들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들의 외환 스왑은 거래 금액이 워낙 커서 수수료가 적지 않다. 문단1처럼 120억 원쯤 되면 수수료가 1%라 해도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한다.

2) 선물 시장에서 달러 선물의 가격이 매 순간 변동하므로 정확히 1,200원인 달러 선물을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험을 온전히 제거하기도 힘들다.

⇒ 문제가 또 있다. 1달러당 1,200원으로 달러 선물을 계약하고 싶은데 그것마저 뜻대로 되는 건 아니란다. 10~20원쯤 변동하는 게 뭐 대순가? 그런 생각이 들 거 같다. 사람들은 길바닥에 10원이 떨어져 있으면 잘 안 줘는다.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에서 1,190원으로 떨어지면 ‘고작 10원 차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거래 금액이 1,000만 달러쯤 되면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고작 10원의 차이가 1억 원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3) 그 번거로움[→ 외환 스왑의 문제점]에서 벗어나, A는 원화가 필요한 해외 은행에 제안하여 3개월 만기의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맥락 짚기] 문단1-4)에서 환율 변동의 위험을 없애는 방법으로 외환 스왑과 통화 스왑이 제시되었다. 이제 통화 스왑 차례다.

⇒ 외환 스왑이 ‘선물 시장’을 통해 환율 변동의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었다면, 통화 스왑은 ‘해외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 외환 스왑은 선물 가격의 변동으로 환율 변동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통화 스왑’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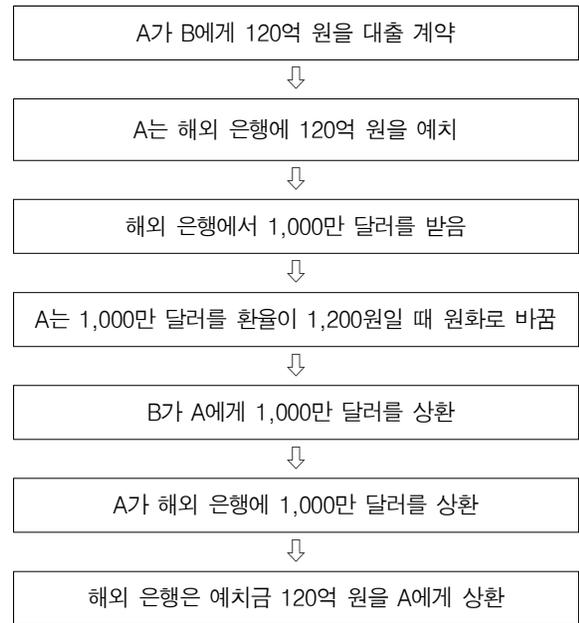
4) B에 이미 대출을 해 준 상태이므로 [통화 스왑] 계약의 이행은 A가 120억 원의 원화를 해외 은행에 예치(= 맡겨 둠)하면서 1,000만 달러를 받아 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 A는 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120억 원의 원화를 해외 은행에 맡겨 두고 1,000만 달러를 받아 온다. A는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았을 뿐 아무런 손해가 없다. 그런데 해외 은행은 번거롭게 이걸 왜 하냐고? 3)에서 해외 은행은 ‘원화가 필요’한 입장이었다.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 통화 스왑 계약이 체결되는 거다.

5) A는 이렇게 [통화 스왑을 통해] 얻은 1,000만 달러를 환율이 1,200원인 시점에 원화로 바꾸어 둔다. 그리고 만기에 A는 B로부터 상환받은 1,000만 달러에 조금의 수수료를 더해 해외 은행에 상환하면서 120억 원을 되찾아 온다. 그러면 3개월간의 환율 변동이 온전히 제거된다.

[Rew]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선물 시장에서 달러 선물의 가격이 매 순간 변동하기 때문에 A는 정확히 원하는 가격인 1,200원에 선물 계약이 어려웠다.

⇒ 1달러당 환율이 딱 1,200원이 되는 시점에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120억 원이 A에게 들어온다. 만기가 되어 B로부터 1,000만 달러를 받아 A는 해외 은행에 돈을 갚고, 해외 은행은 A가 예치해 둔 120억 원을 원화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렇다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모든 위험은 완전히 제거되겠다. 과정을 정리해 보자.



문단4 : 채무를 교환하는 통화 스왑

1) 은행이나 기업들 간에 서로 다른 두 통화로 각기 조달된 채무[→ 빚]를 일정 환율을 기준으로 교환하는 것도 통화 스왑의 일종이다.

[맥락 짚기] 통화 스왑이긴 한데 문단3에서 소개된 것과 다른 유형의 통화 스왑이 제시되고 있다.

⇒ 문단3이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 간의 거래였다면 이제 은행이나 기업들 간의 통화 스왑이다. 핵심적인 차이는 ‘채무’의 교환이다. 빚을 교환한다니, 좀 어리둥절하다.

2) 이는[→ 각기 다른 통화로 조달된 채무를 교환하는 것은] **이자율**이나 보유하고 있는 통화, 예상되는 환율 등을 고려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아, 목적은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란다. 은행이나 기업들이 외환으로 대출을 한 경우 각자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나 환율에 따라 이자가 각기 다를 것이다. 즉, 자신이 어떤 외환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환율 변동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3) 거래 주체들은 [통화 스왑 계약을 맺은 상대방으로부터] 넘겨받은 채무의 이자를 통화 스왑의 만기까지 해당 통화로 각기 납부한다.

⇒ 조심하자. 채무 원금이 아니라 채무 이자만 납부하는 거다. 다음을 보면서 어떤 동기로 채무 교환이 일어나고, 통화 스와프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C 은행	D 기업
대출 통화	프랑화	달러화
대출 이자율	3%	5%
통화 스와프 이전	프랑화 이자 3% 부담	달러화 이자 5% 부담
채무 교환의 동기	확보할 수 있는 통화가 달러화임. 달러화를 프랑화로 바꾸어 이자를 내는 상황이므로 환율 변동 시 위험에 노출됨	프랑화 이자율이 낮으므로 저렴한 프랑화 이자를 내고 싶음
통화 스와프 이후	달러화 5% 납부	프랑화 3% 납부

4) 이때 통화 스와프의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이자율이 낮은 쪽이 높은 쪽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 왜 이자율이 낮은 쪽이 높은 쪽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까? C 은행과 D 기업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 C 은행은 통화 스와프 계약의 결과로 5%의 이자를, D 기업은 3%의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 이로 인해 C 은행은 D 기업보다 2%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D 기업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C 은행의 손해는 줄어들 것이다.

5) 만기에는 계약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채무를 다시 되돌려 주어야 그 이후에는 각기 본래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부담을 진다. 이렇게 채무를 교환하는 통화 스와프는 환율 등이 예측에서 벗어날 경우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 그렇겠다. 통화 스와프 계약 기간 동안 넘겨받은 채무에 대한 이자만 납부했고, 만기가 되면 계약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채무를 다시 되돌려 주는 거다. 그런데 계약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예측했던 환율이 만기가 된 시점에 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단다.

문단5 : 국가 간 통화 스와프

1) 한편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 제도와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기도 한다.

⇒ 통화 스와프의 또 다른 유형이다.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통화 스와프를 맺기도 한단다.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는 왜 필요한 걸까?

[참고] 한 나라의 금융과 통화 정책의 중심이 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 한다. 중앙은행은 통화를 발행하고 외환을 조절하는 등 금융 정책을 시행한다. 주로 정부와 은행에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의 예금액을 맡아 두어서 국가나 사람들 사이에 사용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기도 한다. 지폐를 보면 '한국은행 총재'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2) 이는 국제 결제나 채무 상환 등을 위해 비축해 둔 **외환 보유고**에 더해 추가로 가용(=사용)할 수 있는 **달러화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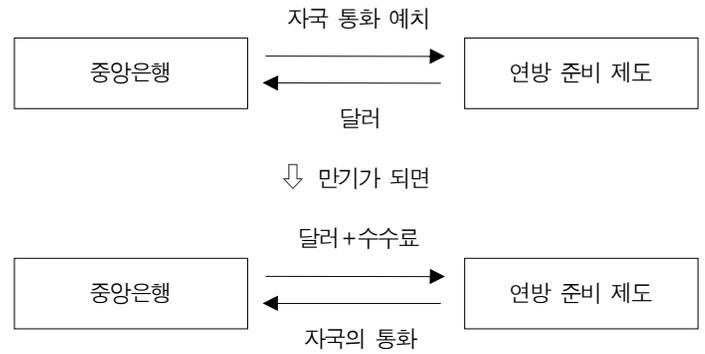
⇒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이 필요한 이유다. 북한 같은 고립 국가가 아니라면 국가 간 무역이나 채무 상환 등에 원화가 아니라 외환이 필요하다. 통장에 당장 쓸 생활비 100만 원 있는 거 보아야 비상금을 포함해서 500만 원쯤 있으면 든든한 것처럼, 외환 보유고도 그렇단다.

[참고] '외환 보유'는 왜 필요할까? 외환 보유고란 한 나라가 특정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금, 외환 채권의 총액이다. 외환 보유는 국가의 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하고 환율의 급등이나 급락 시 환

율을 안정시켜, 외환 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깊어지면서 각 나라마다 외환 보유고가 급감해 향후 통화 가치 하락 같은 환위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와 같은 뉴스를 보면, 외환 보유고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3)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중앙은행은 달러가 필요한 시점에 연방 준비 제도에 자국의 통화를 예치하면서 그[→ 예치한 자국의 통화]에 상응하는 **달러화를 가져올 수 있고**, 만기에는 달러화에 수수료를 더해 지불하면서 자국의 통화를 찾아온다.

⇒ 이렇게 하면 외환 보유고를 직접 확보한 효과는 아니지만 추가로 가용할 수 있는 달러화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겠다. 과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 보자.



4) 각각의 교환 시마다 항상 협정 체결 당시에 양자가 합의한 환율이 고정적으로 적용된다.

⇒ 통화의 교환 거래 시에는 거래 시점의 환율이 아니라 사전에 두 나라의 중앙은행 간에 합의한 환율을 적용한다.

⇒ 만약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가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을 때 1달러당 1,200원으로 합의했다면 통화를 교환할 때마다 현재 환율이 1,000원이 되든 1,300원이 되든 1달러당 1,200원으로 고정돼 있다는 거다.

5)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이렇게 많이 확보할수록 금융 안정감이 강화되며, 해당 국가의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급격히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Rew] 1)에서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아무 나라하고 맺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과 맺는 이유는 달러화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다.

⇒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의 목적 중 하나다. 달러는 각 나라에 다다익선이다. 많이 확보할수록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평가 절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997년 우리나라에 IMF의 위기가 닥친 원인 중 하나도 달러에 대한 비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참고] 기축 통화란 국제 외환 시장에서 금융 거래나 국제 무역 결제를 할 때 기본이 되는 통화다.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지 않을 정도로 군사 강대국이어야 하고, 고도로 발달된 금융·자본 시장을 보유해야 하며,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내수 기반이 확고해야 한다. 19세기 중반까지 기축 통화는 영국의 파운드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어 오늘날에는 달러화가 전 세계적으로 기축 통화로 거래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아성을 위안화나 유로화가 넘보고 있다.

[42~45] 고전시가 : (나) 작자 미상, 「갑민가」

* 수록 지문 평가

‘갑민’은 ‘갑산[→ 함경남도 갑산군. ‘삼수갑산’ 할 때의 그 갑산이다.]에 사는 어떤 백성’이라는 뜻이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가사 문학에 평민들이 참여하여 평민 가사가 생겨났다. 이 작품에서는 사용하는 언어 측면에서의 평민적 성격과 내용 측면에서의 평민적 성격을 잘 살피며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인물을 내세워 각자의 의견과 사연을 말하게 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전개하는 대화 형식에 주목하자.

* 수록 지문 분석

토막1 : ‘훈계하는 사람’의 말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 네 행색 보아하니 군사 도망(軍士逃亡) [→ 군역 때문에 도망질하는] 너로고나[→ 너이로구나]
→ 어이 어이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모습을 보아하니 군사 도망질하는 너로구나.
허리 위로 붙작시면 베적삼(= 삼베 저고리)이 깃(= 옷깃)만 남고 / 허리 아래 굽어보니 흰 잠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홰바지) 노닥노닥(= 해지고 찢어진 곳을 여기저기 깎거나 붙인 모양을 표현하는 의태어)
→ ‘막일을 할 때 입는 옷인데 거의 누더기가 되었고, 그 행색을 보아하니 군역 피해 도망가는 중이구나.’
굽은 할미 앞에 가고 절뚝발이 뒤에 간다 /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얹쳐지리
→ 허리 굽은 여자 노인[→ 모친일거다.]이 [네] 앞에 가고 [있고], 다리 절뚝이는 남자 노인[→ 부친일거다.]이 [네] 뒤를 따라가고 있다. / 하루에 [겨우] 십 리 길을 가니 [앞으로] 몇 리 [더 못] 가서 얹어질 것이다.
⇒ 늙은 부모를 앞뒤로 세우고 이끌면서 도망치는 모양새이다.
⇒ 십 리는 약 4km. 젊은 사람이라면 한 시간에 갈 거리다. 그런데 ‘너’는 함께 가고 있는 노인들이 걸음을 잘 못 걸으니 하루 종일 가도 십 리밖에 못 갈 텐데, 앞으로 얼마 못 가서 얹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훈계하는 사람’의 말 : 군역 때문에 도망치는 ‘갑민’을 목격하고 염려함.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람 타도타관(他道他官) 옮겨 살면
→ 자기 고을에서는 양반이었던 사람도 다른 곳에 옮겨 가서 살면 천(賤)히 되기 예사거든 고향 군역 싫다 하고 /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손가
→ 천하게 [취급]되기가 일쑤인데, 고향에서 지는 [군역]이 싫다 하고 /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 [자기] 근본 [을] 숨기고 살려 해도 어디 간들 [군역을] 면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 뿌리박아 / 칠팔월에 삼(蔘)을 캐고 구시월에 돈피(黓皮, 담비 모피) 잡아 / 조세 신역(身役, 나라에서 부과하는 군역과 부역)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 갑산은 북쪽의 오지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군역, 부역 대신 특산물 공납이 부과되었다. 깊은 산골이니 산삼을 캐고 담비 가죽을 구해서 군역 대신 내리는 것이다.
함흥 북청 홍원[→ 셋 모두 지명이다.] 장사 돌아들어 몰래 팔 때 / 후한 값 받고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 도구 장만하여 /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면
⇒ 공납으로 바치는 특산물 품목은 사적으로 사고팔 수 없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러니 오히려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었던 게다. 물론 공납 바쳐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것이기도 하고, 어쩔

든 주변 큰 고을들을 기반으로 한[→ 거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납으로 바칠 특산품을 필요로 했을까?] 특산물 상인들이 여기에 와서 몰래 매매 행위를 할 때, 특산물 공납을 내고 남은 그 산삼과 담비 가죽을 몰래 후한 값에 팔아 한 재산 장만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이 ‘갑민’이 정말 군역을 피해 늙은 부모를 억지로 이끌고 도망하는 중이라면, 그 이유가 뭘까? 자기 몫의 산삼, 담비 가죽도 못 바쳐서 견디다 못해 도망하는 사람한테 여분의 산삼과 담비 가죽을 잔뜩 구해서 팔자를 고치라니..... 장난하나? 그러니 우리는 이런 걸 조언이라고 던지고 있는 이 화자가, 이 가사에 담긴 **평민적인 주제 의식에 대립하는 가치관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게다.

• ‘훈계하는 사람’의 말2 : 군역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갑산에서 군역도 수행하고 잘 살라는 훈계를 함.

토막2 : 도망하던 ‘갑민’의 말[→ 화자가 바뀜]

어와 생원인지 초관(哨官, 조선 시대 무관 벼슬)인지 / 그대 말씀 그만 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 이내 또한 갑민(甲民, 갑산 백성)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소나
→ 아아, 생원인지 초관인지 [모르지만] / 그대는 [헛된] 말을 그만 두고 이 내 말을 들어 보오. / 이내 또한 갑산 백성이라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이때 일을 모르겠는가.
⇒ 화자가 바뀌고 둘 이상의 인물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생각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서사적 맥락이 형성된다.
우리 조상 남중 양반(南中兩班)[→ 남쪽 사람인 양반. 화자가 있는 곳이 북녘의 ‘갑산’이므로 그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남인’이라는 말을 썼을 게다.] 진사 급제 계속하여 / 금장 옥패[→ 금으로 장식한 옥패. 높은 관직의 상징물] 빗기 차고 임금 모셔 다니다가
→ 우리 조상[은] 남쪽[의] 양반[으로서] 초시[에] 급제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아 / 중앙 관리의 신분 패를 비껴 차고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 다니다가
⇒ ‘진사’나 ‘초시’는 과거 시험 중 초급 시험인 초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붙는 명칭이다. 조선 시대에는 삼대가 지나도록 초시에 합격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 집안은 양반 계급에서 떨어나는 것으로 취급했다. ‘진사 급제 끊이지 않아’는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남의 시기 참소(= 헐뜯음) 입어 전가사변(全家徙邊, 죄인을 온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는 일)한 후에 / 극변방(極邊方)인 이 땅 [→ 갑산]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 시기[하는 이의] 참소[를] 당해 집안이 변방으로 귀양 온 후 / 이 변방의 끝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邑中)[→ 갑산읍의] 구실[→ 하급 관리] 첫째로다 / 들어가면 좌수 별감(= 향소의 우두머리인 좌수의 측근) 나가서는 풍헌(= 향소에서 면이나 이 단위의 일을 맡아 보던 자리) 감관(= 향소에서 돈이나 곡식을 간수하고 출납을 맡아보던 자리) / 유사(有司, 향교 등에서 사무를 보는 자리) 장의(掌儀, 단체나 모임에서 예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자리) 자리 나면[→ 자리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 조상 덕에 하는 갑산읍에서 여러 하급 관리의 일을 맡아 볼 수 있어서, 그래도 이때까지는 양반 나부랭이로서 체면을 지키며 살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예술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 음모를 꾸며 남을 해침)로써 / 군사 강등(降等) 되단 말가[→ 무관에 대한 징벌로서 계급을 낮추어 군역을 부과했다는 거다.] 내 한 몸이 헐어나니(= 망가지니) / 좌우 전후 많은 가족 차차 충군(充軍, 군역의 명부를 채움) 되거고야[→ 군역

의 명부를 채우게 되었다는 뜻이다.]

⇒ 자신이 모함을 받아 일반 군사로 차출되니 온 친척에게 차차 군역이 부과되었다는 말이다.

• '갑민'의 말1 : 조상은 양반이었으나 몰락하여 친족들의 집안 모두가 군역에 들게 됨.

누대 제사(累代祭祀, 여러 대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 조선 시대에는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 인간의 큰 의무 중 하나로 여겨졌다.]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어 있고 / 시름없는 친족들[→ 여러 일가친척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이 법이라 /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 해마다 맞춰 무니 석승[→ 진나라 때의 부자로 동양 문
화권에서는 부유한 사람의 대명사로 쓰였다.]인들 당할소냐

⇒ 자신은 아무리 힘들어도 조상 제사를 지내야 해서 도망하지 못하고, 제사를 맡지 않은 친족들은 흔적도 없이 도망했다는 말이다.

⇒ 도망간 친족들의 군역을 자기 혼자 물어내게 되니, 그렇게 해를 거듭하는 사이에 재산이 거덜 났다는 말이다. 조선 시대 군역의 폐단 중에서 '족징(族徵)'의 전형적인 예일 게다.

약간 농사 전폐(全廢)하고 삼을 캐러 입산(入山)하여 / 허항령(虛項嶺) 보태산(寶泰山)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 인삼 짝은 전혀 없고 오가(= 두릅 나뭇과의 활엽 관목) 잎이 날 속인다

⇒ 약간 짓던 농사도 중단하고 [군역 공납을 내기 위한] 산삼을 캐려고 온갖 험한 산을 돌고 돌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말이다.

하릴없이 헛되이 와서 팔구월 고추바람[→ 매운 바람] /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 산행(獾皮山行, 담비 사냥을 해서 그 가죽을 얻는 일) 하려 하고 / 백두산 등에 지고 강 아래로 내려가서 / 싸리 꺾어 누대 치고 잎갈 나무로 모닥불 놓고[→ 임시변통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 하나님께 축수(祝手, 비는 일. 기도)하며 산신(山神)님께 발원(發願, 소원을 아뢰는 일)하여 / 물채 줄을 갖춰 꽃고[→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부정을 막을 금줄을 만들고] 사망(=장사의 이(利)가 많이 남는 재수) 일기(=생기기) 기원하되 / 내 정성이 부족한지 사망 기회 아니 불네

⇒ 산삼 캐는 일은 실패하고 담비 사냥을 하려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 '갑민'의 말2 : 무진 애를 썼으나 군역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함.